

지역 소식통

부안군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기간내 6일 동안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차당 10명씩 나눠 진행됐으며 '체험활동을 통한 자원봉사 방향찾기'라는 주제로 생활비느낌, 불쾌인팅, 목공 원예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원예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화분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심신을 달래주고자 부안군 관내 우체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이 많이 답답했지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비대면 영농지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각 읍·면의 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해 비대면 영농지도도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해 농업인상담소에서는 시기별 농작물 관리 요령과 장마,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우려되는 농작물 피해 예방·문제점 등을 전화상담·SNS·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농지도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벼, 고추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시기별 맞춤형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정보지와 재배기술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통화회의에도 영농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긴 장마로 인해 벼에서는 잎도열병, 황명나방과 고추는 탄저병, 담배나방 등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병해충 집중방제를 지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법, 농약안전사용 수칙 등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과 함께 마스크 착용법도 함께 알리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월영습지 · 솔티숲 명소화

정읍시, 생태자원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 육성 총력 2024년까지 사업비 73억 투입, 기반시설 단계적 구축

정읍시가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최적의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보고 생태관광 명소로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영습지는 2011년 실시한 전국 습지 조사에서 처음 발견된 습지로 2014년에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산 정상부 일대 계곡 사이의 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

지 내륙습지로, 과거에 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던 폐경지가 습지로 전이되어 가는 자연의 역사를 담고 있다.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전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구렁이와 말뚝가리, 수리부엉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과 포유류·조류·육상 곤충 등 동물 122종, 식물 154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들 생물들에게 중요한 생



정읍시는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보고 생태관광 명소로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태적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솔티숲은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 자락의 솔티마을 숲이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원시숲으로 형성되어 있고 깃대종인 비단박새와 진노랑사슴과 같은 멸종위기종과 733종의 자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는 우수한 생태자원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위해 2024년까지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의 첫 관문인 내장생태탐방 마루길을 조각공원 인근에 조성해 내장호와 내장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경조망의 명소를 만들었다. 또, 솔티숲과 솔티마을을 잇는 솔티숲 옛길을 복원했고, 월영마을에서 월영습지까지 약 1km에 이르는 자연 탐방로를 20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솔티숲 생태체험장과 생태관광지 인근에 내장산 생태탐방원을 조성해 시민들과 탐방객에게 생태해설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21년까지 탐방객을 위한 방문자 지원센터 건립도 계획·추진 중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자연 자원을 전시·교육·홍보하고 탐방객에게 생태 체험과 마을 생태 탐상 체험 등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생태관광 공동체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선심·낭비성 지출 억제, 건전재정 실현"

부안군은 지난 25~26일 양일간 각 부서 주무팀장과 예산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발 교육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1년 재정운영 방향, 전년과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설명했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 코로나

19 여파로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가 약 100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예산편성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일자리, 취약계층 보호, 신성장소독사업 등에 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부안

형 뉴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도로·교량·하천 등 SOC사업과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1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오는 10월 중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월 21일까지 부안군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축산농 사료 구매자금 추가 용자

고창군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18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료구매 자금을 융자한다. 2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상반기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원 융자를 진행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지원 사료는 조사관제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릿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8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9년 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의 멜론이 지난 24일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100개 멜론 주산지에서 올라온 멜론보다 높은 3만9000원(8kg/박스)에 낙찰됐다.

'고창 멜론' 역시 전국 최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서 3만 9000원에 낙찰

고창군의 멜론이 지난 24일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100여개 멜론 주산지에서 올라온 멜론보다 높은 3만9000원(8kg/박스)에 낙찰돼 전국 최고 멜론임을 증명했다.

고창지역 140여 농가가 100ha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고창멜론은 오랜 명성을 쌓아온 수밖에 이어 북화지역으로 육성되고 있다.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고창 멜론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

특히 각 지역의 5개 멜론생산자 단체가 연합회(회장 김성욱)를 구성해 최고품질 규격화에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도 농촌개발대학 멜론과 학습과정을 통해 상향 평준화된 멜론을 생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수확후작으로 재배된 고창멜론은 시설하우스 1동(330㎡)당 벚짚을 1톤이상 넣어 땅심

을 유지하고, 모든 작목별이 GAR(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아 명품멜론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9월19일 2번째 고창멜론 온라인 경매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경매에선 4차례에 걸친 최고품질 멜론 선발과정을 거친 1등 멜론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고가 경매를 진행한다. 앞서 고창멜론은 지난해 전국최초 온라인 경매를 통해 210만원의 경이적인 낙찰가를 기록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급 농산품 시장에서 고창멜론은 빠질 수 없는 품목이다. 무엇보다 1만5000년의 역사를 가진 쌀의 역사와 함께하는 벚짚은 땅속에 들어가 유익한 미생물로 인해 고창멜론을 더욱 깊게 만들어 낸다"며 "2번째 온라인 멜론 경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치매 극복 봉사단 '치매인지 깨우미' 결성

정읍시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함께할 치매 극복 봉사단 '치매인지 깨우미'를 결성했다.

치매 극복 봉사단을 통해 치매 파트너 플러스 봉사활동 역할을 확대하고,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힘을 계속 확대한다. 치매 극복 봉사단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며 도움을 준다. 봉사단은 치매 파트너 치매 극복 플러스 교육을 이수한 7명의 봉사자로 구성됐다.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

선 활동과 치매 예방법 전파,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는 돌봄 지원 등 치매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한다.

현재 봉사단은 치매안심센터 컴퓨터 프로그램(원예치료, 공예 활동, 인지 강화 훈련 등) 보조 등 치매 어르신의 참여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극복 봉사단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지해주는 동반자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치매 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치매 극복 봉사단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